

나주,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검진·암 검진율 지표' 우수

나주시(시장 윤병태)의 주민 밀착형 보건 의료 정책이 결실을 맺었다. 시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율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 건강 수준에 대한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258개 시·군·구 보건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나주

시민 901명(542가구)을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에 대해 실시했다.

나주시는 조사 결과(팔호 전국 평균)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67.6%(66.9%), 건강검진 수진율 79.6%(71.5%), 암 검진율 65.7%(51.2%),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70.0%(68.1%)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현재흡연율

18.6%(20.3%), 월간음주율 55.6%(전국 평균 58.0%), 아침식사 실천율 50.0%(전국 평균 47.0%), 고혈압 진단 경험률 19.2%(전국 평균 20.6%)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3년 조사는 결과의 적시 활용을 위해 조사기간을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진행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해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주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도곡면 번영회(회장 차주성)가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의 동반축제'로 4월 20일, 21일 이틀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곡면은 고인돌 역사·문화자원 이외에도 미니파프리카 등 특화농업이 발달해 지역의 소득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도곡 번영회는 도곡면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6개 단체와 협력해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 도곡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 홍보 목적의 ▲농특산물 시식회 ▲비빔밥 퍼포먼스 ▲떡매치기 체험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번영회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를 통해 도곡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맛 좋은 고품질의 우수 농특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저

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오소 1천원 - 농산물 1만세트 ▲소고기 부위별 할인 판매, 쌀 500g 무료 제공 ▲부스 방문객 600인 무료 비빔밥 제공 등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화순의 대표 축제인 고인돌 축제와 동반해 파격 형태로 시도되는 도곡의 지역축제가 성황리에 마쳐지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상당한 연쇄(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수진 도곡면장은 "도곡 농특산물 축제를 통해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 및 먹거리를 충족시키고, 고인돌 (봄·가을꽃) 축제와 더불어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가 더욱더 매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장성군, 한글 공부 열정 화제

장성군이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어른신이 있어 이목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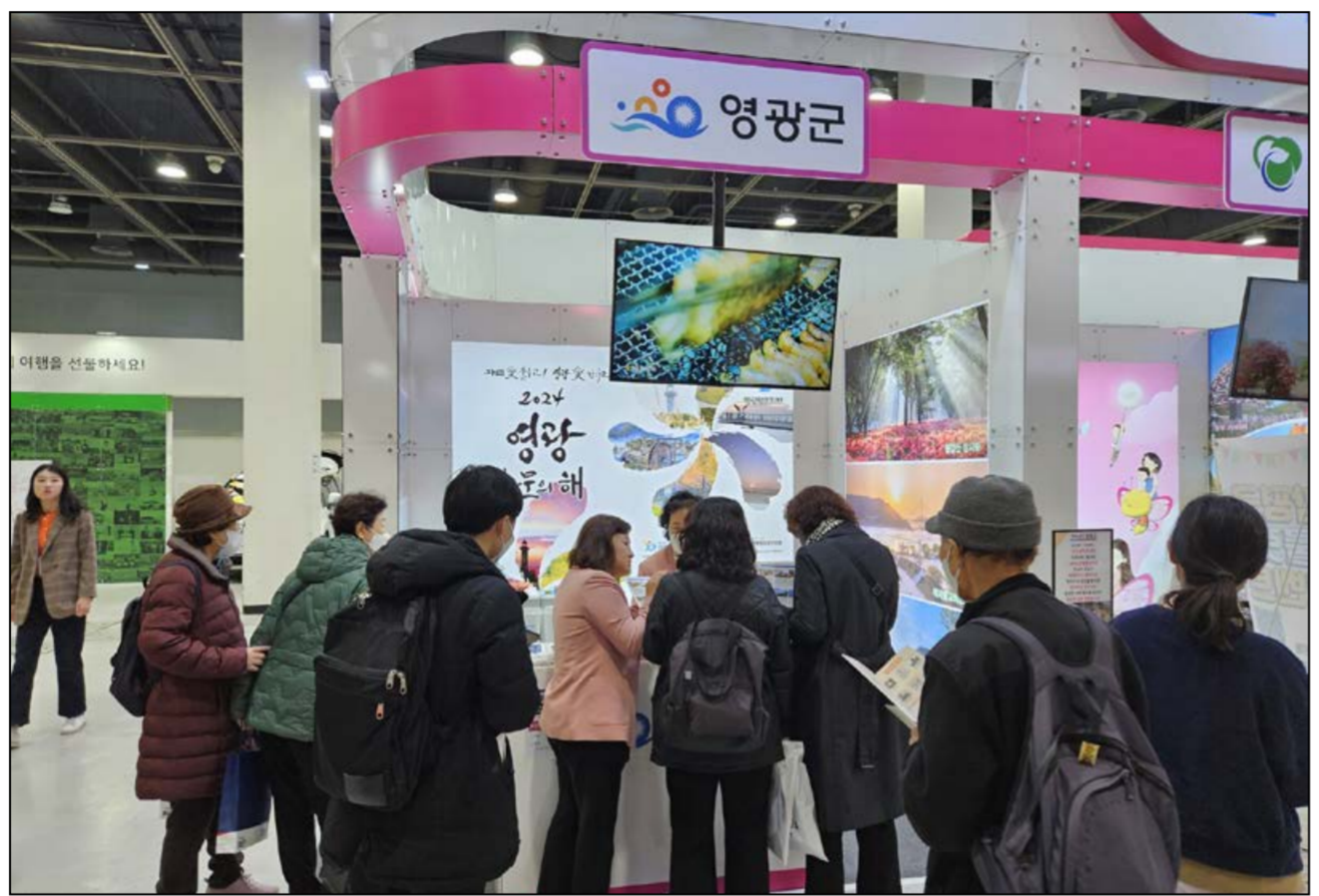
주인공은 삼서면 외동마을 나이순(81세) 어른신이다. 나 어른신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글 공부를 위해 매주 두 번씩 동화면 송계경로당 한글교실에 출석했다.

집에서 경로당까지는 10리 넘게 떨어져 있지만, 어른신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주위의 걱정과 만류에도 나 어른신은 "평생 모르던 글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니, 이전 텔레비전 글씨도 읽는다"며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데 10리 길이 대수겠나"고 답하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참석이 어렵게 됐다. 지난 겨울, 미뤄뒀던 무릎 수술을 받는 바람에 더 이상의 '10리 길 출석'은 무리였다.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장성군은 나이순 어른신처럼 배움의 의지가 있음에도 학습 장소가 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다. 문해강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새로 열었다.

도입 초반이지만 교육장소가 멀어 참여를 망설였던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글 수업을 받지 못해 낙담했던 나이순 어른신이 미소를 되찾았다. /유광중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최근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내나라 여행박람회 관광홍보 활동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최근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금년에도 전국 132개 기관에서 230여 개 부스가 참가해 다양한 관광시책 등을 소개하고 전국 곳곳의 명품 여행자원을 홍보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군은 박람회에서 '2024 영광 방문의 해' 주요 관광시책, 대표 관광지·특산물·축제 홍보와 영광 쉽투어, 영광군 관광전지지도 설치 이벤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의 큰 원동력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과 천년의 역사가 깃든 영광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률 기자

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의 큰 원동력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과 천년의 역사가 깃든 영광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률 기자

담양 쌀, 체코 유통전문업체와 수출 계약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쌀 수입 및 국내 소비량 감소로 산지 쌀값의 연이은 하락에 농민과 관계기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담양군의 연이은 대유럽 쌀수출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담양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체코 아시아인 식료품 유통전문업체인 'SHINFOOD(대표 최준정)'와 수출 계약해 현지 판매 전용 브랜드인 '운수대통 담양쌀 20톤을 4월 1일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3월 18일 프랑스·오스트리아 수출 초도 물량 이후 두 번째 대유럽 수출 물량으로 1년 간 매달 20톤을 수출해 현지 한

식당 등에 판매될 예정이다.

담양 쌀은 과거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 및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명품 쌀이다. 특히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미주, 유럽에 300톤을 수출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2022년 준공한 담양군 통합RPC는 유럽 농산물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인 농산물우수관리(GAP)관리시설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지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수출 최적화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판로 다변화를 통한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진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